



조경수목 산책 (VI)

- 소나무 -



임경빈 / 농학박사



▶ 애전면의 처진소나무 1992. 7. 5.

1. 머리말

소나무를 더러 솔, 솔나무, 참솔등으로 말하는데 기록에는 소오리나무라는 명칭도 있다. 우리나라 나무중 가장 넓은 분포면적을 가지고 있고 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나무이다.

중국의 고전 시경에 회즙송주(檜楫松舟)라는 대목이 나타나고 있는데 뜻은 전나무로 노를 만들고 소나무로 배를 만든다는 것으로 소나무는 일찍부터 인식되어왔고 그 용도의 적절성도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소나무는 인류문명의 여명과 함께 나타난 나무가 아니겠는가.

소나무의 한문자는 송(松)인데 이 글자는 중국 전설시대의 황제(黃帝)의 신하 창힐(蒼頡)이 만들었다고 한다. 소나무는 나무중 가장 뛰어난 나무이므로 나무목(木) 옆에 공후백(公侯伯)하는 서열중 첫째인 공(公)을 붙여서 소나무의 높은 품계(品階)를 나타내었다는 풀이도 있다.

그렇다면 황제시대에 이미 공후백자남의 위계가 있었어야 말이 서로 들어 맞는다.

우리말이름 소나무는 솔자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송(松)자는 이미 무척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자이고 보면 그리고 그 발음이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송(song)인데 송나무로 되고 이것이 더나아가서 소나무로 된 것이 아니겠는가.

2. 국민이 선호하는 나무

우리나라 산림청에서는 나무에 대한 국민의식을 1991년 2월에 조사한 바 있는데 이때 성인남녀 1500명을 직접 면담했다. 그때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약 55%가 소나무를 들었고 2위와 3위는 각각 은행나무와 잣나무였다.



▲영월 범홍사의 소나무숲. 1994. 3. 5.

그런데 대학교 교수 100명의 반응을 보면 첫째가 소나무인 것은 같았고 2위 3위는 일반인들의 견해와는 달리 느티나무와 참나무가 차지했다. 이처럼 소나무는 월등한 수준으로써 국민의 나무라는 위치를 차지한 것이다.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생각컨데 그 아름다움에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나무의 미(美)를 극구 찬양한 옛날의 많은 시와 문장이 그것을 말해 준다.

그래서 소나무를 이시진(李時珍)은 백목지장(百木之長)으로 표현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생각은 그대로 받아 들여졌다.

3. 소나무의 쓰임새

소나무는 그 쓰임새에 있어서도 당연히 다른 나무를 능가하고 있다. 집을 짓는데에는 소나무는 필수적인 것이었고 농기구, 생활용의 잡품, 가구재, 기구재는 소나무로 만들어 졌었다.

솔갈비, 소나무장작, 소나무숯 등 취사용 난방용의 연료로써도 소나무는 그만이였다. 죽어서는 소나무관에 담겨져 소나무 숲속에 묻혔다. 솔잎만 먹고 살아간 사람이 있었는가하면 소나무의 내피는 흉년을 모면하는데도 토리와 함께 결정적 역할을 해냈다.

송화가루는 각종 토속적 식품을 만드는 재료로 쓰였다. 소나무 연기로 만든 먹은 기록을 남기는 문방구의 하나로서 그 위치는 지중한 자리에 있었다.

4. 식송론의 소나무

이래 저래 소나무는 사람의 칭송을 받게 되어 있는데 중국 당나라 때 시인 무제는 식송론(植松論)을 지어 소나무를 평하고 있다. 다음과 같다.

우리가 소나무를 태산이나 송산등 높은 산에 심어 둔다면 바다의 빛나는 기운이 그안에 서리고 해와 달의 밝은 빛이 비치어 상서

로운 봉황새가 그 위에서 춤을 추고 그 아래에는 맑은 샘물이 흐르며 솔잎 사이를 스치는 시원한 바람은 더없는 아름다운 음향일 것이며, 그 뿌리는 땅속 황천 깊이 뻗어 가고 그 가지는 푸른하늘의 구름을 쓸어낼 것이다. 소나무야말로 명당을 떠 받치는 기둥이요. 큰 집의 대들보감이니 나무중의 나무이다.

이쯤하면 소나무의 면모를 짐작할 수 있고 더 칭찬의 말을 붙일 필요가 없다.

5. 분류상으로 본 소나무

나무는 나자식물(裸子植物)인데 분류학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 종자식물(顯花植物)
- ↓
- 나자식물(자방조직이 없다)
- ↓
- 구과식물(conifers)
- ↓
- 소나무과(pine family)
- ↓
- 소나무속(pinus pines)
- ↓
- 쌍유관속 아속(hard pine)
- ↓
- 피나스타절(pinaster)(종자에 날개)
- ↓
- 라리키오네스아절(Lariciones)
- ↓
- 소나무
- 소나무의 잎은 두개가 모여나



▲속리산 정이품송 1993. 3.

서 짙을 이루어 마주 나며 아래는 2~3mm쯤 길이의 엽초(葉鞘)안에 묻혀있는데 이 엽초는 소위 숙존성(宿存性)으로 잎이 떨어질때까지 끝내그대로 있다.

마주난 두잎이 생애를 함께하고 한 무덤속으로 돌아가는 비사한 상황에 우리선조들은 감탄하고 음양송(陰陽松)이라 칭했으며 부부간 사랑의 극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 잣나무계통(soft pines)은 잎안의 유관속이 하나이고 엽초는 탈락성인 것이 소나무와 다르다.

6. 범주사 정이품송

우리나라 소나무의우두머리는 무어라해도 속리산 범주사 앞 약 3km떨어져있는 진입로 옆에 서있는 소위 정이품(正二品) 소나무이다. 나무높이 15m, 추정수령 600년이며 가슴높이 줄기둘레는 약 4.7m이다.

이 소나무는 수관이 양산을 편 것 처럼 고루 사방으로 뻗어 정돈된 아름다움을 보여 준다. 그러나 몇해전 모진 바람이 불어서 아랫쪽 큰가지 하나가 꺾어졌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비어있어 허전한 느낌을 준다.

오래살다 보면 모습이 이쯤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소나무 중에서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수형을 가진 것은 없다. 1980년경 부터 솔잎혹파리의 침입이 있어 몹시 시달렸고 또 이나무를 살리느라 많은 돈도 쓰여 졌다. 앞으로 이나무가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살아 가기를 바랄 뿐이다.

7. 정이품 대부송

이밖에 또 하나의 정이품송이 있다고 금년초 신문지상에 소개된 적이 있다. 즉 서울 운현궁 안채인 이로당(二老堂) 뒤뜰에서 고



▲운현궁 정이품대부송 1994. 1.

종이 벼슬을 내린 정이품 대부송(大夫松)이 발견되었지만, 이 소나무는 벼락을 맞아 죽었고 다만 그루터기만 남아 있을 뿐이다라고 했고, 고종이 1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뒤 즉위하기전 자주 올라가 놀던 옛집의 이 소나무에 정이품의 벼슬을 내렸다고 한다.

또 고종은 정이품송에 정이품이하 종4품까지를 지칭하는 대부(大夫)라는 명칭을 붙여 그앞에『정이품대부송』이란 표지석도 세웠다고 한다.

필자는 이러한 신문의 보도를 보고 곧바로 그곳을 찾아갔었고, 운현궁을 보호관리하고 있는 사람도 만나 그 유래를 알아 본바 있다. 줄기 높이 1.5m쯤이 남아 있는데 거의 썩어서 손만 대면 푸석푸석 허물어지는 상황에 있었다.

이것이 소나무인가 아니면 다른나무일 것인가하는 의문이 들

어, 나는 그줄기의 일부를 따서 현미경으로 조직을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에 의하면 소나무라는 사실은 밝혀졌다. 이것이 사실의 정이품대부송인지 그 기록을 얻고자 했으나 아직 나의 손에는 그 기록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저러나 이 소나무의 몸은 이미 없어지고 말았다. 살아 있었다해도 서있는 자리가 좁은 언덕위라서 큰나무의 모습은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짐작되었다. 우리나라 소나무중 정이품자리에 올랐던 것이 두그루였다는 사실은 나에게는 새로운 정보였던 것

이다. 그러나 이것은 더 두고 살펴야 할 문제이다.

8. 황금소나무를 찾아서

1992년 8월, 몇몇 일간지에『세계적 희귀목 황금소나무 발견』이란 제목아래 울진군 북면 주인리 뒷산에서 잎이 황금색으로 된 소나무의 존재를 보도했다. 보도에는 강원도 삼척군 가곡면 동활리 산허리에 있는 황금소나무 다음으로 이것이 두번째로 발견된 것이라 했다.

나는 황금소나무를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



▲삼척, 동활리 황금소나무 1994. 3. 6.



▶ 일반소나무와 황금소나무의 대조. 임목육종연구소 포지(수원) 1994. 1.

1994년 3월 6일, 절기로는 경칩 일, 황금소나무를 찾게 되었다. 경북도경에 가까운 곳에 원덕읍이 있다. 아침 일찍 원덕읍을 떠나 서쪽을 향해가면 가곡마을이 있고 가곡천을 따라 태백시쪽을 보고 나아간다.

주변은 석회암지대인데 곧은 줄기의 소나무가 탐스럽게 솟아 오르고 있다. 가곡면사무소를 지날때도 주변 산에는 좋은 소나무 숲이 전개되었다. 석회암지대도 소나무의 좋은 자람을 지탱해 줄 수 있구나 했다.

가곡천의 물은 맑고 산은 푸르고해서 은어가 많이 잡힌다고 한다. 그래서 길가에는 은어를 광고한 음식점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풍곡리에 도착하니, 그곳에는 강릉염림서 삼척관리소 호산국유림사업소 풍곡분소라는 긴 명칭의 기관이 이곳에 있었다.

황금소나무가 있는 동활리에 접근할 무렵 산자락에 유난히도 곧은 줄기의 소나무가 10그루 모여서 자라고 있어서 깊은 인상을 던져 주었는데 뒤에 알고 보니 이것은 당목림(堂木林)이라 했다.

그래서 해마다 이곳에서 제사를 올리는 데 전해들은 말로는 100년전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했다. 수피는 붉고 지하고가 무척 높고 분지각(分枝角)은 직각에 가깝고 수관이 좁아서 육종재료로서는 훌륭하다고 생각되었다.

줄기가 다소 가늘기는 했지만 곧은 줄기 가는 결가지가 마음에

들었다. 이곳은 눈이 많이 쌓이는 곳으로 1979년에는 적설량 170cm에 달했고 봄 늦게까지 녹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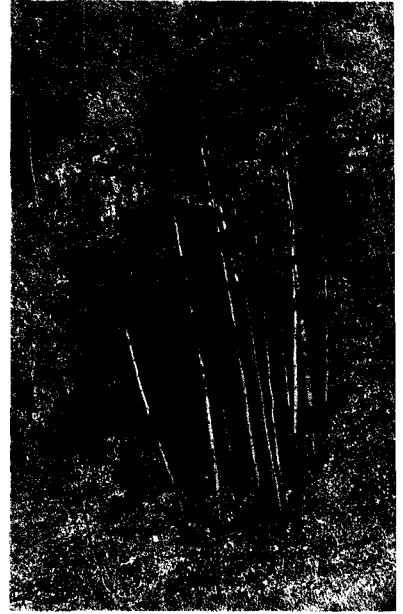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 남으려면 줄기는 곧을 수 밖에 없고 가지는 가늘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눈에 눌러서 죽어야 한다. 굵은 줄기의 나무, 굵은 결가지의 나무는 눈의 힘으로 도태되어 그 유전자를 잃어 버리고 만생이다.

곧 황금소나무가 눈앞에 나타났다. 수고 3m, 흉고직경 13cm, 지하고 1m수관폭 2.5m, 서향하고 있는 산자락 가까운 곳에 서있는데, 주변의 경사는 급했고 토질은 식양토였다.

100년생쯤 된다고 한다. 잔가지가 많이 나서 수관은 대체로 둥근감을 주었고 잎색깔은 황금색에 가까웠다. 항상 이모양으로 살아 간다고 했으나 내가 보기에는 활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노랑색의 잎속에는 푸른색깔의 엽록소의 함량이 적을 것인데 녀석하지 못한 탄소동화작용으로 싱싱한 힘을 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 황금소나무는 이곳 마을주민을 지켜주는 신목(神木)으로 취급되어 해마다 동제를 올리고 이나무를 신성시하고 일반 접근을 막고있다.

황금소나무는 그수가 적다. 가곡천 주변은 괴암 기봉 푸른솔들로 절경을 이루는 곳이고 특히 곧



▲당목림. 삼척, 동활리, 1994. 3. 5.

은 솔은 인상적이다. 태백으로 가자면 해발고 830m의 신리재를 넘어야 하는데 역시 석회암지대의 곧은 소나무가 전개되고 있다.

태백시로 진입하기전 통리를 지나게 되는데 통리는 한강과 낙동강의 수원이 시작되는 곳이다. 태백시를 지나서 오른쪽으로 함백산을 왼쪽으로 태백산을 멀리 보면서 상동읍에 이르렀다. 대한중석상동광업소가 있는 곳이다. 지금은 폐광상태에 있다.

곧 수다리재에 이르렀는데 해발고 530m 영월군 중동면에 있는 높은 산지이다. 우리는 이 산마루에서 곳곳에 산재해 있는 황금소나무로 보이는 변이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황금소나무는 강원도 동남부지역 석회암지대에서 더



▲영월, 법흥사의 소나무숲. 1988. 6.

잘 나타낼 수 있는 변이체라고 생각되었다. 영월군 서면에 있는 「옛고개길」이란 재가 있었는데, 이곳에도 황금소나무로 보이는 개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영월군의 주천을 지나 법흥사로 향했는데 이쯤되면 이미 황금소나무는 나타나지 않았다. 황금소나무는 조경적 가치가 인정되어 장차 번식되고 더 많은 식재를 보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9. 영월 법흥사의 소나무

여러해 전에 나는 영월, 수주면, 법흥사 주변의 소나무숲을 보고 감탄한 적이 있다. 쪽 뺨어 올라간 긴 줄기에 결가지 없이 팬들 맨들한 붉은 수피. 인간이 아직 없을 무렵에도 이 숲은 있었겠는데, 그 아름다움은 무엇때문에 만

들어 진 것인가!

인간의 시각을 머리속에 두고서 창조주는 이러한 미의 결작을 만들어 낸 것인가! 확답을 얻지 못한채로 나는 그 숲의 황홀에 매료되었던 것이다.

이번길에 법흥사의 숲을 다시 답사하게 된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큰대추나무가 많은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를 지나 법흥사 솔밭으로 들어 갔다.

옆에는 1920년에 심은 잣나무 숲이 있어서 인상적이었으나 줄기가 두갈래로 갈라진 개체가 많았다. 여기에는 소나무수형속 164호와 165호가 있다. 사진에 담아 보았으나 너무 높았다.

10. 황장골의 황장금산 표지석

해가 너울너울 서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어서 마음이 다급해진 가운데, 영월군 수주면 두산2리 황장골로 달려갔다.

황장골이라하면 소나무로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황장목(黃腸木)을 많이 생산하는 마을이란 뜻이다. 황장이라하면 관재(棺材)를 생각나게 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황장골 사람들은 마을이름 황장골 그 자체를 싫어하고 있었다.

그런 연유로 황정(黃井) 마을로 말하고 있었다. 마을에 놓여 있는 다리이름도 황정교였고 이 다리옆에 황장금산(黃腸禁山)이라고 초서체로 갈겨쓴 표지석이

서있었다. 이 표지석은 이마을 주변에 서있는 소나무는 너무 질이 뛰어나서 서울의 왕실에서 사용할 황장목으로써 일반백성들의 벌채를 금하는 것으로 역사적유물의 하나이다.

필자가 답사한 이와비슷한 금산(禁山)의 표지석은 5군데인데 예전에는 더 많이 설치되어 있었을지 모르나 지금은 남아있는 것이 극히 적다. 다해서 5개 쯤만이 알려지고 있을 뿐이다.

황장골의 황장금산 표지석은 높이가 약 95cm인 흰색갈의 돌인데 4개의 글자가 새겨진 앞면의 넓이는 50~65cm이고 두께는 37cm 쯤되는 크기인데 전에 밭속에 묻혀있었던 것을 이곳에 옮겨 대석 위에 설치해서 보기 좋게 해놓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



▲황장금산의 표지석 영월군 수주면 두산2리 황장골 1994. 3. 5.

돌의 가치를 몰라보고 아이들이 마구 다루었고 그래서 음각해 놓은 황장금산의 4글자중 산(山)자는 마모로서 희미하게 자취만 남아 알아보기 힘들다.

이 마을을 지나서, 흐르는 물이 있어서 끊어진 소나무는 물길 따라 서울까지 운송된 것으로 안다.

11. 소나무의 변종

소나무라는 종(種 species)아래의 분류단위로 변종, 품종, 아종 등이 인정되고 있다. 이 3가지 분류단위간의 구별은 쉽지않고 모호한 점이 많다. 다 같은 것을 두고 어떤사람은 변종으로 말하고 다른사람은 품종으로 다루는 등 뚜렷한 구별점을 내세우기 어려운 듯 하다. 소나무에는 많은 변종, 품종이 있으나 이곳에서는 생각나는 것 몇가지만 언급해 보고자 한다.

(1) 반송(盤松)

내가 국민학교 (당시는 보통학교로 말했다)를 다닐때 등교길은 십리는 너럭한 먼거리였다. 그 중간쯤에 송골고개라는 고개가 있었는데 그곳에 몇그루의 반송이 있었다.

우리는 그때 그것을 만지송(萬枝松)으로 불렀지, 반송이란 말은 모르고 있었다. 천지송(千枝松)으로 말하는 곳도 있다하나 나로서는 만지송이란 명칭이 가장 알맞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가지

가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진다는 건데 얼마나 그 모습을 잘 나타낸 이름인가.

만지송의 우리나라 대표적인 나무는 전북 무주군 설천면에 있는 반송이다. 높이가 17m, 추정수령 300년의 노거목으로 그자세가 위풍당당하다. 그곳사람들은 구천동의 상징목이란 뜻에서 구천송(九千松)으로 부르고 있다.

역시 전북 고창군 선운사 뒷산 쪽에 장사송(長沙松)이란 반송이 있는데 수형이 몹시 아름답다. 수고 23m 추정수령 600년이다. 이곳에 사진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뒤에 사진으로 볼 기회가 있을 것이다.

반송은 우리나라 각처에 나고 조경수목으로서 값비싼 나무이다.

(2) 처진소나무



▲무주 설천의 반송. 1992. 3



▲청도운문사의 처진소나무 줄기부분 1992. 6. 28

가지가 능수버들처럼 아래로 처지는 소나무의 한품종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아름다운 처진소나무는 경북 청도군 매전면에 있는 것으로 수형이 대단히 우아하다. 수고 14m, 추정수령 200년이라하는데 장차는 이러한 처진소나무가 조경수목으로 개발될 날이 올것으로 본다.

신기할 정도로 아름답다. 이곳에서 멀지 않는 청도 운문사에 처진소나무가 있다. 이 나무는 가지가 옆으로 뻗어 땅을 덮고 있는 모습인데 앞에 말한 매전면의 처진소나무와는 형상을 다르게 하고 있다.

운문사의 처진소나무는 수고 6m, 추정수령 400년의 노거수로서 당당한 위용은 주변을 압도하고



▲참도운문사의 처진소나무 1992

6. 29.

있다. 해마다 봄이 오면 이나무에 열두말의 막걸리를 주는 행사가 실시되고 있다.

(3) 다닥다닥 소나무

이품종은 학명으로는 *forma basi-aggregata*인데 나무가지의 중간부분 이하에 솔방울이 다닥다닥 붙은 것이다. 이 부분에는 수꽃이 달려야하는데 이것이 암꽃으로 성전환(性轉換)해서 솔방울로 된 것이다. 한나무에 이러한 형질이 몇해동안 계속해서 나타나는 일이 있다.

좀 신기한 특성의 나타남인데 땅집이 나쁜곳에 나는 소나무에 이현상은 더 흔하다고 한다. 만일 솔방울이 가지의 끝쪽에 모여날 때에는 이것을 도깨비방망이 소나무라 하고 학명은 *forma aggregata*이다. 우리는 어릴때 이런 것을 꺾어서 도깨비가된양 소리치는 장난꾸러기였다.

(4) 둥근 소나무

이것은 수관이 땅표면에 근접해서 발달하고 그 모양이 반구형



▲다닥다닥 소나무 1993. 7. 20.
원광대학교

(半球形)이거나 둥글거나 또는 타원형으로서 수형이 아름답다. 가지가 많이 나서 수관이 뽁뽁해 보이고 가지는 거의 수평방향으로 뻗는다. 아랫가지가 죽지 않고 오래남는다.

잎도 뽁뽁히 많이 달려는데 유전성인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 학명은 *var. globosa*이다. 조경수목으로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

12 소나무의 향기

소나무에서 어떠한 향기를 맡을 수 있는가.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여기에 한알의 사과가 있을때 식물학자는 품종을 생각하고, 상인은 가격을, 예술가는 색채를, 일반백성은 그맛을 생각하게 된다.

여기에 한그루의 소나무가 있을때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던져주는 맛과 향기는 다를 수 있다.

가도(賈島)의 다음시는 높은

정신세계를 거닐고 있는 어떤 은자의 주변상황을 알려주는 호소력같은 것이 있다.

소나무아래에서
동자에 묻다
스승은 약초캐러가고
지금 이 산중에 계실것이나
구름이 깊어 곳을 알 수 없노라
고

松下問童子 言師採藥去
只在此山中 雲深不知處
여기에 또 하나의 당시를 음미
해 본다.

가을밤 그대 생각이나
싸늘한 길 걸으면서
시를 읊는다
텅빈 산속 고요함에
떨어지는 솔방울소리
그대 어찌 이경지에서
잠을 이루겠나.

懷君屬秋夜 散步詠涼天
山空松子落 幽人應未眠

삼라만상 온천지가 고요에 쌓여 있는데 떨어지는 한톨의 솔방울소리는 이 시인으로 하여금 깊고 넓은 우주를 내다볼 수 있게끔 마음의 문을 열어 주고 있다. 소나무가 연출해 내는 위대한 음향이요, 음악이다. 세상을 쪼개는듯한 가장 짧은 음률이다.

소나무는 고요한 철학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나무라 할 수 있다.